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제6708호 울산매일 yes

반구대

총리 급구(急求)

국무총리격이었던 조선 초기의 영의정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모든 국사를 총괄하여 권한이 대단했다. "삼공(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일국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권한이 높고 국체(國體)가 중하더니 세조가 정난(靖難=쿠데타)으로 왕통을 이으면서부터 그 제도를 피하여 이때부터 권한이 땅에 떨어지고 국체 또한 점점 풀어졌다."(識小錄)고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 독재의 필요성이 생기고, 독재를 하려다 보면 상대적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줄어든다. 이후부터 조선의 영의정이라는 직책이 사형수나 결정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하니 한심한 벼슬이 되고 말았다. 국무총리 무력(無力)의 전통은 이처럼 유구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에 이어 국정의 제2인이다. 하지만 역대 총리 중 몇명을 제외하고 이같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드물었다. 이는 총리라는 자리의 태생적 애매함 때문이다. 애당초 내각제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대통령제 국가에 심다보니 직책도 모호하고 운용도 애매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삼고초려 끝에 당시 존경받던 김상협 고려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김총리의 취임 일성은 "막힌 곳을 뚫고 휘어진 것은 바로 펴겠다"였다. 하지만 언론은 김총리를 '방탄 총리' '국면 전환 총리'라고 했다. 역대 총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전(儀典) 총리' '대독(代讀) 총리' '얼굴마담 총리'라는 말에는 무력한 총리들 모습에 대한 비아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휘말린 이완구 총리는 63일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집권 2년 2개월의 박근혜 정부는 5명의 총리 후보 가운데 3명이 청문회도 못하고 낙마, 2명 사퇴라는 뼈아픈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미숙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는 후임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 끝에 2014년 6월 26일 60일 만에 유임되는 초유의 총리가 됐다. 사의를 발표하고도 물러나지 못했던 정 전 총리는 '불멸의 총리' '뫼비우스(순환한다는 뜻)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제 여섯번째 총리 급구(急求)에 나선 마당에 일부에서는 '총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대한민국 총리 수난사'는 어디까지 갈지 안타깝다.

김병길 주필

사는이야기

내가 괴롭힌 아이, 나를 괴롭힌 아이

신호현
시인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라는 우월함에
반친구 괴롭히며
마음에 상처를 줘

반대로 당하고보니
잘못 깨달아
존중·배려없인
친구가 될 수 없어

봄비가 내려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는 '곡우(穀雨)'가 지났다. 봄볕은 따사로이 새싹을 틔우고 어여쁜 꽃들이 만연한 4월이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생활을 이어잔 지도 벌써 두달이 됐다. 올해는 더 이상 큰 사고도 없고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길 기원한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된 내가 지난 학창 시절에 '내가 괴롭힌 아이, 나를 괴롭힌 아이'를 떠올려 본다. 그 때는 학교가 짐승처럼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회초리로 지도하셨고 아이들은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던 시절이었다. 학생들은 선후배 사이거나 친구간에도 학교폭력이 심했다. 남학교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피가 터지는 싸움이 많았다. 일진이 되지 않으면 비굴해지는 학교에서 지지 않으려 우쭐거렸던 시절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우연히 반장이 되었다.

그 때는 반장이 선생님의 권한을 힘입어 반 친구들을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물론 중1 때 나도 반장으로부터 떠든다고 대걸래 자루로 맞은 적도 있다. 나는 친구들이 떠들면 몽둥이로 위협했다. 그 때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아이가 떠들기에 불러내 때린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그 때 네게 마음에 상처 받았다.'며 이후론 동창회도 안 나왔다. 또 그 때에 시골에서 다니는 친구 중에 반장인 나에게 맞지 않으려고 내가 친구를 부르면 그 친구는 내게 존댓말로 대답을 하며 차렷 자세로 와서 섰다. 지금에 군대도 그럴까. 그 때는 그 친구의 반응이 재밌기도 하고 내가 힘쎄 보이는 우월감에 반장임에도 그 친구를 괴롭히는 재미가 있었다. 툭하면 불러서 심부름도 시키고 심지어는 벌도 주었다. 내 밥이라고 생각했다.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내 친한 친구가 그 친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나를 불러 '그 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친구이니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다. 나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친구는 전문계고에 들어가 전문계고 특별 채용에 합격하여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다. 친구라지만 그 때의 일로 그 친구도 연락을 안 하고 나도 먼저 연락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내가 반장이었음에도 '나를 괴롭힌 아이'가 있었다. 당시 나는 키가 작아 중간 정도였지만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깡도 제일 센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때문에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데 많이 힘들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떠들어서 '반장으로서 아이들 하나 못 잡느냐!'며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 때 선생님은 덩치도 작고 아이들 휘어잡지 못하는 나를 돕겠다고 '떠드는 아이는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 쪽지를 드렸다. 그 친구는 교무실로 불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나는 속으로 이제는 그 친구가 고분고분 나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그 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그 때 여선생님 수업 중이었는데 필기하시는 사이에 뒷자리에 있던 그 친구 엉금엉금 내 자리로 기어와 연필 깎는 칼을 들고와 내 허벅지에 대고는 '너 죽고 싶냐!'며 나를 위협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하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10여년 지나 결혼할 즈음에 나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아이 돌잔치를 한다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나는 서울에서 이천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거기에 와 있었다. 그 친구는 초췌한 모습으로 '너 요즘 뭐하며 지내니?'라고 겸연쩍게 물었다. 난 '서울에서 선생 한다. 너는 뭐하냐?'는 물음에 그 친구는 쓴 소주잔을 들이키고는 처음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수를 따라 다니며 기술을 배웠단다. 그러나 힘들어 택시 운전을 했는데 새벽 2시에 갖다 놓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차를 교대하며 22시간씩 차를 쓰는데 그 친구는 한 시간 일찍 찾아가고 한 시간 더 늦게 갖다 놓으면서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살기 힘들었다고 쓴 술잔을 다시 들이키곤 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괴롭힌 친구들이나 나를 괴롭힌 친구는 영원히 친구로 남지 못했다. 폭력은 당하는 친구에게 상처로 남고 폭력을 행사한 친구에게 영원한 미안함으로 남기 때문이다. 친구간에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이기에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로 남아 있는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서로 존중하고 먼저 생각해 주었던 고마운 기억만 남아 있다. 그러니 지금 학생들도 미래에 친구나 내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미지의 친구들이다. 친구를 괴롭힌다는 것은 그 친구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니 그 친구를 영원히 친구 목록에서 뺀다는 의미로 보아도 지나친 생각이 아닐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준 친구만 친구로 남는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존중과 배려가 봄철에 피어나는 꽃들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물줄기가 될 것이고, 따뜻한 햇볕이 될 것이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잎이 벌어지듯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처받는 친구를 위로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옳지 않은 행동이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히 말해 줄 수 있어야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호 그림세상

월요광장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교육현장 피해 최소화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판단이라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도 당연히 표류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 현장은 '제2의 곽노현 사태'를 우려하며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올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판결이라며 직선제 폐지 논쟁에 불을 지필 기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요즘처럼 교육 현장이 명분과 정치논리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는 교육 수장의 도덕적 권위가 다른 어떤 덕목보다 중시된다. 조 교육감이 설령 최종심에서 교육감직 유지 판결을 받더라도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교육 개혁과 학생 인권 증진 등 여러 정책들이 동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시 민선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낙마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잃은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주민 손으로 뽑자는 취지에서 2007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당 공천도 배제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다보니 과도한 선거비용이 늘 문제가 됐고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아직도 팽팽하다. 한편에선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제도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바로잡되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도 상급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연합뉴스

브레인 뚝뚝
www.braintoktok.com
NAVER 더브레인 두뇌학습클리닉 검색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학습부진 자녀, 혹시 아직도 다그치기만 하십니까? 자녀들도 공부가 뜻대로 안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말해주세요. 다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학습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길, 더브레인두뇌학습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10.21 KBS "읽기 부족, 「난독증」 의심"
• 10.22 SBS 성적부진, 「학습장애」가 원인" 뉴스 보도 보셨습니까?

세상은 지금, KBS위기탈출넘버원, EBS다큐프라임, KBS스페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된
두뇌개발전문가그룹 더브레인두뇌학습클리닉과 함께 하는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두산초 / 선암초 / 활초초 / 용두초 / 동대부중 / 자양고, 난독증교정훈현 프로그램으로 더브레인두뇌학습 시스템 도입 등 전국 초 · 중 · 고교에서 뇌훈련 프로그램으로 더브레인두뇌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뇌호흡과 다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학습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 19.6%는 난독증 등 학습장애와 ADHD같은 과잉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가 할 일은, 공부하라고 자녀들을 다그치는 대신, 학습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에 따른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뇌훈련기반 두뇌트레이닝전문교육기관 더브레인두뇌학습과 상의하세요!

더브레인두뇌학습클리닉 The Brain Learning Institute
하이퍼포먼스브레인연구소 Smart Brain Smart Learning
울산점 052.260.8709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71-3, 꽃단비한의원 2층 (현대백화점 뒤 공영주차장 입구)